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9. 10.(금)

## ■ ( 농정 이슈 ) 2021.9.10. “한국농업신문” 보도(2차)

### ○ 무기질비료 14.8% 인상 결정..농협·농가 상생 택해

- 64종 중 일반 무기질비료 35종 해당
- 농업인 판매 가격 9% 대 인상
- 올해 물량 80% 이상 소진·원예용 제외 아쉬워

농가 경영비 상승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무기질비료 농협 계통 납품 단가 인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64종 가운데 일반 무기질비료 35종에 대한 평균 구매가격을 14.8% 인상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 무기질비료업체가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내려진 결정으로, 조비,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등 국내 무기질비료 업체들이 올해 초부터 요구한 농협 계통 납품 단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무기질비료 납품 단가 인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가격 인상이 곧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농업인단체, 농가 등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농업 전체 발전을 위한 상생을 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 인상을 위해 농협은 지속적인 농업 현장 의견 수렴, 한국비료협회 및 비료업체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정부, 농민단체,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비료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에 비종별로 25~40% 수준의 공급단가 인상 조정을 요청했으나 최종 인상은 평균 14.8% 수준인 가운데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고려해 농업인 판매가격은 평균 9.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는 평균 인상률 14.8%에서 재고 물량 10만톤을 인상 전 가격으로 적용한 평가액과 농협 수수료 증가분을 제외한 수치다.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9. 10.(금)

주요 농가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요소 1만600원(9250원 대비 14.6%) ▲21-17-17 복합 비료 1만2400원(1만1000원 대비 12.7%) ▲맞춤형 비료 1만442원(9339원 대비 11.8%) 등으로 결정됐다.

반면 이번 가격 인상 결정이 생각보다 늦어져 비료업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가을 양파, 마늘 등에 사용될 원예용비료가 가격 인상 품목에 빠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월부터 마늘·양파·배추·보리 등 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가 판매되는데, 현재 원료가격으로는 대부분 원예비료가 한계이익도 나오지 않아 팔면 팔수록 비료업계는 적자가 누적되는 실정이다.

현재도 비료 판매를 하면 1포당 1500~2000원씩 손실을 보고 있어 일부업체는 농협 계약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A 비료업체 관계자는 “농업 현장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료업계의 현 상황에 함께 공감해 주고 대안을 마련해 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가격 인상이 이미 농업 현장에 80% 이상의 비료 물량이 나간 뒤에 이뤄진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설명했다.

< 최정민 기자 >